

라이프니츠의 실체형이상학에서 물질세계의 의미와 위상

김 국 태

주제분류 형이상학, 자연철학, 서양근세철학

주요어 물체, 실체, 생명체, 단일성, 유사실체, 물질세계, 이성중심적

요약문

이 글은 라이프니츠의 실체형이상학에서 물체와 관련하여 서로 연관된 두 가지의 문제를 명료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하나는 물체는 실체인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존재론적 근거에서 실체적인 원리를 라이프니츠는 물리학적 탐구에 응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리적 세계의 원리와 구성에 관한 주제는 자연과학의 정초를 목적으로 하는 라이프니츠의 자연철학에서 중요한 과제였지만, 정작 그 토대가 되는 물질 및 물체의 존재론적 의미와 원리의 과학적 응용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명료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물질세계는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물질세계는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상대적으로 의미가 등한시 되어 온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라이프니츠에서 의식을 가진 생명체만이 실체이며, 물체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물체는 유사실체라는 이름하에 가설적 의미의 실체성을 부여받으며, 그런 근거하에 실체적 원리는 물질세계를 탐구하는 물리학적 문제에 적용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라이프니츠의 존재론에서 물질세계는 이성적인 인간의 실천 매체로서 만의 의미를 가진다.

1. 물리적 실체에 관한 의혹

"자연의 모든 부분은 식물로 가득 찬 정원이나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의 각 부분, 동물의 각 부분과 한 방울의 체액도 그러한 정원이나 연못과 같다."

"(...) 정원의 식물들 사이에 있는 흙과 공기나 연못의 물고기들 사이에 있는 물은 식물도 물고기도 아니지만, 그것들 역시 식물이나 동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우리 눈으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다."

위의 두 인용문은 각기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의 완성작의 하나인 『모나드론』(Monadologie)의 67절과 68절로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로 충만하다는 것을 밝히는 글이다. 충만의 원리는 연속성의 원리와 더불어 라이프니츠의 자연철학의 기본 원리에 속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주는 그 어느 곳도 빈 곳이 없으며,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로 충만하다. 인간을 포함한 고등 동물에서부터 미미한 하급 생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완성을 지향하며,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명체들을 라이프니츠는 실체라 한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실체는 어떤 추상적인 기체나 물질적 원소가 아니라, 의식과 신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개별 생명체이다. 라이프니츠는 우주는 그런 실체들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생명체들의 터전인 물리적 자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물질의 세계, 즉 흙, 물, 공기로 된 물리적 자연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터전이다. 이런 터전의 구성 요소인 물질이 실체인지 아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것은 존재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¹⁾ 논리적으로는 생명체만이 실체라면, 물질과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

1) 라이프니츠는 물질(Materie), 물질덩어리(Masse), 물체(Körper)를 물리적 존재를 지

존재는 실체가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이에 대해 『모나드론』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점은 『모나드론』보다 20여 년 전에 출간한 물리학적 저술인 『모범역학』(Specimen Dynamicum)에서 라이프니츠는 물체를 실체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는 물체의 실체성 여부와 관련하여 『모범역학』이나 『모나드론』 같이 완결된 저작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복잡한 이론적 배경이 있음을 시사한다.

존재론에서 존재들의 터전인 물리적 자연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그 존재론은 사상누각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나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물질과 운동, 힘에 관련된 물리학적, 자연철학적 문제는 어느 주제 못지않은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물리적 존재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라이프니츠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는 물질이 실체인지? 물질과 물리적 자연은 라이프니츠의 존재론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지는지를 명료히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작업을 『모범역학』으로부터 『모나드론』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진 라이프니츠의 연구들, 특히 서한문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서한문들은 라이프니츠의 존재론적 연구 과정상의 글들로 단편적이며, 개념적으로 정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모나드론』을 비롯한 완숙기의 존재론의 토대를 이루는 실체에 관한 핵심적인 사고들과 물질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이 탐색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물체는 실체인가?

라이프니츠에서 물체가 실체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는 역학적 에너지

칭하는 동의어로 혼용하며, 물리적 물체(physischer Körper) 또는 물체적 사물(körperliche Dinge)이라고도 칭한다. 본고에서도 이 용어들을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

법칙 법칙을 유도하고, 운동 현상을 탐구하는 물리학적 저술인 『모범역학』이다. 『모범역학』은 당시 새로이 등장한 수학적, 기계론적 방식의 과학을 존재론적으로 해명하고,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반한 물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라이프니츠의 자연철학적 의도를 배경으로 하여 집필된 글이다.²⁾ 현상을 실체적인 원리로 환원하거나 그로부터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존재론적 방법에서 물체의 본질에 관한 실체론적 이해는 핵심 전제가 된다. 따라서 『모범역학』은 물체에 관한 실체적 원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업은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비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비판의 핵심은 물체의 실체적 본질은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처럼 연장(res extensa)이 아니라, 힘(Kraft)이라는 것이다.

“물질적 사물에는 단순한 연장에 추가되는, 오히려 연장에 앞선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힘이다. 이 힘은 창조자에 의해 모든 사물에 심어진 것이다.”³⁾

“힘은 물체의 가장 핵심적인 본성을 이룬다. 왜냐하면 작용은 실체의 특성이고, 연장은 이미 전제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즉 저항하는 실체의 확장 또는 확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힘은 모든 물체에 원초적으로 내재하며, 물체의 본질을 이루는 실체적 기체이다.⁵⁾ 라이프니츠는 이 실체적인 힘을 근원

2) 근대의 분류에서 (운)동력학(Mechanik)은 충돌이나 인력 같은 외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동을, 역학(Dynamik)은 물체가 자체적으로 가진 성질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동현상을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를 지칭한다. 뉴턴의 물리학은 전자에, 라이프니츠의 물리학은 후자에 속한다.

3) SD, Teil 1, Absatz 1

4) 같은 곳

5)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하나는 기체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기체를 원리로 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이 두 경우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모두 실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용어상의 혼란을 덜기 위해 두 경우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적인 힘(ursprüngliche 또는 primitive kraft)이라 부르며, 실체적 형상 또는 영혼, 일차 엔텔레키라고도 칭한다.⁶⁾ 근원적인 힘은 활동성과 욕구(Streben 또는 Drang)를 특성으로 하는데, 활동성은 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작용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힘을 능동적 힘(aktive Kraft), 작용하는 활동성(agierende Tätigkeit)이라고도 칭한다. 욕구는 힘이 외적으로 작동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데, 이는 화살을 운동 상태로 가져가려는 경향으로 충만해 있는 팽팽히 당겨진 활의 시위에 비유될 수 있다. 이처럼 힘을 물체의 실체적 기체로 보는 라이프니츠의 역학적 사고방식은 역사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점은 라이프니츠는 힘을 정량화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⁷⁾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힘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용어로 표현하면, 작용하기 위한 상태에 있는 가능적 능력(potentielles Vermögen)이라 할 수 있다.⁸⁾ 라이프니츠는 이 실체적인 힘을 근원적인 힘과 파생적인 힘으로, 근원적인 힘은 다시금 능동력(ursprüngliche aktive Kraft)과 수동력(ursprüngliche passive Kraft)으로, 파생적인 힘 역시 파생적 능동력(derivativ aktive Kraft)과 파생적 수동력(derivativ passive Kraft)으로 구분한다. 근원적 능동력은 운동과 작용의 근원이 되는 실체적인 힘 자체를 지칭한다. 근원적 수동력은 전자에 대립되며, 운동에 저항하고 관성을 행사하는 피동적 특성의 힘으로 물체가 불가 침투성을 비롯한 물성을 가지는 근거가 되며, 제일물질이라고도 칭한다.⁹⁾ 파생적 능동력과 수동력은 우리가 물리적 자연에서 경험하는 속도, 충돌, 위치이동, 상호작용, 운동에너지 등, 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운동 양태들의 근거가 되는 힘이다.¹⁰⁾ 특히 파생적 수동력은 연장과 질량을 가진 물체를 이루는

6) SD, Teil 1, Absatz 1, 3

7) 참조, P. Duhem, Ziel und Struktur der physikalischen Theorien, 144쪽

8) 참조, Aristoteles, Physikalische Vorlesung, IV, 1, ; Fritz Lieben, Vorstellungen vom Aufbau der Materie im Wandel der Zeiten, 203쪽

9) 참조, SD, Teil 1, Absatz 3,4; Erläuterung Zu Absatz 3(103쪽)

10) J. Mittelstraß, Neuzeit, und Aufklärung, S. 488 Anm. 22

근거가 되며, 이차 질료라 칭한다. 힘과 물체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실체로 규정한 연장을 기체인 힘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그리고 물체적인 속성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¹¹⁾ 물체의 본질을 물체에 내재하는 실체적 힘으로 보는 라이프니츠의 역학적 사고방식은 연장을 실체로 본 데카르트의 실체관 뿐만 아니라, 원자적 물체를 자연의 실체적 단위로 가정한 원자론자들과 모든 자연의 운동을 기계적 원리, 즉 물질적인 원리로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물론자들의 생각도 거부하는 의미를 가진다.

힘을 물체의 기체로 규정하고, 파생력을 비롯한 운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하여 라이프니츠는 역학적 에너지 법칙을 연역한다.¹²⁾ 라이프니츠가 도출한 에너지 법칙은 데카르트의 운동량 개념($P=m \cdot v$; P :충격량, m :질량, v :속도)과 뉴턴의 운동법칙들($F=m \cdot a$ 및 인력)에 대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우선 에너지 법칙은 데카르트와는 달리 물체의 내재적 능력인 힘을 운동 현상의 원인으로 보며, 데카르트의 운동량개념을 구성요소($m \cdot \Delta v$)로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뉴턴이 발견한 인력과 같은 물체들 간의 원격작용력을 존재론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실체적 원리인 힘에 근거하여 에너지법칙을 연역한 『모범역학』은

11) SD, Teil 1, Absatz 1; Teil 2, Absatz 1

12) 같은 책, Absatz 4,5,6; 참조, Erläuterung zu Absatz 5, : 연역은 두 가지 전체 하에 이루어진다. 첫째는 뉴턴이나 데카르트가 말하는 힘이 아니라, 낙하현상에 서처럼 힘을 통해 산출되는 작용의 결과를 보여주는 힘, 즉 운동에너지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운동은 연속적인 위치의 변화이며, 위치변환은 운동의 미분적 요소인 코나투스(Conatus)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코나투스는 현상에서 작용하는 힘의 요소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운동량의 미분적 크기($m \cdot dv$: m =질량, v =속도)에 해당한다. 이 두 전제로부터 그는 운동에너지를 미분적 시, 공간에 상응하는 미분적 힘의 요소인 코나투스인 $m \cdot dv$ 의 연속적 누적으로 생각한다. 연속적인 위치변환동안 이루어지는 코나투스의 무한한 축적으로 생동적인 힘(vis viva)이 만들어지며, 이 생동적인 힘이 유발하는 결과가 운동에너지가 된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운동 에너지를 $m \cdot dv$ 의 적분으로 규정하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공식을 유도한다. (참조, K. Mainzer, Symmetrien der Natur, Kap. 3.33; Kuck Tae, Kim, Der dynamische Begriff der Materie bei Leibniz und Kant, 59-60쪽)

라이프니츠의 과학적 이상, 즉 경험과학의 형이상학적 근거지움이라는 방법적 이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그리고 과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연구의 하나이다. 라이프니츠의 과학적 이상은 자연 현상을 존재론적 원리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기계론적으로 서술되는 물리법칙을 역학적 원인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며,¹³⁾ 이는 당시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등에 의해 전개된 자연과학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모범역학』의 주제는 운동현상의 연구이지 실체론은 아니기 때문에, 물체가 실체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은 라이프니츠가 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앞서 인용한 문장(각주 3)의 의미는 실체의 특성이 힘의 특성인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은 물체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실체와 물체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와 실체는 일단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이프니츠는 실체와 물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부터 차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실체는 “*körperliche Substanz*”¹⁴⁾라고 하는데, ‘*körperliche*’란 수식어는 대상이 물리적 존재인 경우에는 ‘물체적’이란 의미로, 대상이 생명체인 경우에는 ‘신체적’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 문제를 다루는 『모범역학』에서 ‘*körperliche*’는 물리적 존재에 해당하는 ‘물체적’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körperliche Substanz*”는 물리적 존재인 물체의 원소를 의미하는 물체적 실체로 해석된다. 다른 문헌들에서는 물질적 실체 (*materielle Substanz*) 또는 물리적 실체(*physische Substanz*)를 물체적 실체와 동의어로 사용한다.¹⁵⁾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물체를 물체적 사물

13) 참조, Arnauld(Juni 1686)에게 보낸 편지(서한문은 수신자의 이름과 발신일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책: HS, Bd. 2, 206, 225쪽: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자연 현상을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수학은 역학에 의해, 역학은 형이상학에 의해 근거지어져야 한다.

14) SD, Teil 1, Absatz 3

(körperliche Ding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체의 실체”(Substanz der Körper)란 표현을 사용하는데,¹⁶⁾ 이는 물체가 실체들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물체와 실체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른 한편으로는 물체와 물체적 실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라이프니츠가 실체뿐만 아니라, 물체, 물질도 기체인 힘의 담지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욕구, 근원력 능동력, 수동력, 피동력 등, 실체적인 힘들의 특성과 종류에 대한 논의에서도 물체를 그러한 힘들의 실질적인 주체로 인정한다¹⁷⁾는 사실에서 추론된다. “(실체적인 힘의 특성인) 욕구는 물질이 있는 어디서나 지성에 의해 인지된다”는 표현이나, “물체 자체에 있는 힘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는 표현도 그러한 사례가 된다.¹⁸⁾

3.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구체적인 운동을 탐구하는 물리학적 연구에서도 실체적인 힘의 원리와 그로부터 추론된 개념들을 별도의 설명 없이 물체에 적용한다.

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물체가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물체와 실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실체의 원리들이 어떻게 물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없다. 하나의 가능한 가정은 물질적 실체와 이들로 이루어진 물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라이프니츠는 암묵적이지만 물체를 최소한 실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de Volder(19. Jan 1706), HS. Bd. 2, 356쪽

16) SD, Teil 1, Absatz 1

17) 같은 책, Absatz 3

18) 같은 책, Absatz 1

3. 물체는 실체가 아니다

3.1 물체는 실체의 집합이다

『모범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물리학적 저술로 실체개념 자체가 주제는 아니다. 『모범역학』에서 전제하는 역학적 개념들, 즉 근원적 힘, 작용하는 활동성, 능동력과 수동력 등은 아르노(Arnauld), 드 볼더(de Volder) 등과의 서신과 『형이상학적 논고』(Metaphysische Abhandlung, 1686), 『새로운 체계』(Neues System, 1695) 등, 『모범역학』의 출간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실체론적 연구들에서 개발된 것이며, 『모범역학』은 이 개념들을 물리학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실체론적 연구에서 라이프니츠는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라이프니츠의 실체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체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와 기체 개념으로 실체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기체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는 『모범역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와 물리적 원자론자들의 실체 개념비판과 더불어 시작하는데, 비판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연장이나 물질적 원자 같은 물리적인 기체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외에 실체는 비물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은 실체가 될 수 없으며, 실체는 비물질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라이프니츠는 그가 실체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단일성 조건, 즉 실체는 분할불가능한 단일체라야 한다는 데서 찾는다.¹⁹⁾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연장은 모든 기하학적 대상들이 그렇듯이 직관이 허용하는 한 무한히 분할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궁극적으로 단일한 부분이 확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체가 될 수 없다.²⁰⁾ 그리고 연장은 실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수나 시간처럼 인간에 의해 부여된 관념적 구성물이다.²¹⁾ 이 생각은 분할불가

19) 참조, de Volder(21. Januar 1704), HS, Bd. 2, 334쪽

20) 참조, 같은 책, 335쪽

능한 원자적 물체를 실체로 보는 원자론자들에게도 해당한다. 원자론자들이 최종의 기체로 생각하는 원자도 아무리 작다할지라도 물체인 한 크기를 가지며, 크기를 가지는 모든 것은 분할 가능하다. 그 때문에 실체가 될 수 없다. 단일성을 실체의 기준으로 하는 한 연장이나 원자 같은 물질적인 원리는 실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라이프니츠는 물질적인 원리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원리가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영혼이라는 정신적 기체를 물체의 실체적 원리로 규정한다.

“모든 물체적 실체는 영혼이나 적어도 그에 유사한 엔텔레키를 가져야 한다.”²²⁾

영혼은 지각이라는 의식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정신적 기체를 말하는데, 라이프니츠에서 의식 개념은 높은 수준의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되지 않는 의식과 그 보다 더 저급한 수준의 인지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영혼은 의식의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인식론적 논변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개념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지만, 엔텔레키(entelechie)를 영혼에 유사한 그리고 영혼보다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수준의 기체, 이를테면 동물혼이나 그 보다 더 단순한 수준의 기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영혼이나 엔텔레키의 활동의 근원을 힘으로 규정한다.²³⁾

21) 참조, de Volder(23. Juni. 1699), 같은 책, 298쪽 이하; Arnauld(April 1687), 225쪽, Anm. 377

22)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44쪽; 참조, (Juni 1686), 206쪽

23) 엔텔레키를 근원적인 원리라는 의미에서 근원적인 힘 또는 erste Tätiges oder Substantielles(같은 책, 292쪽), aktive substantielles Prinzip(298쪽)라고도 한다. 그리고 힘을 실체와 동의어로도 사용하며,(225쪽)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의 속성이라고도 한다.(289쪽)

“나는 운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능동적인 힘에서 근원적 엔텔레키, 한마디로 말해 영혼에 유사한 것을 인지한다.”²⁴⁾

라이프니츠가 영혼의 활동의 근원으로 규정하는 힘 개념도 의식 개념처럼 단순한 물리적 힘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지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처럼 모든 종류의 정신력과 심리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단순 엔텔레키라 칭하는 저급한 기체의 활동력을 지칭할 경우 힘은 역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영혼이나 힘은 비물질적이며, 질적인 개념으로 양적인 것에 적용되는 분할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할불가능성 또는 단일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이제 힘이라는 기체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실체를 구성하는데, 기본 논리는 앞서 『모범역학』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 기체로서의 힘은 근원적 힘이라 칭하는데, 근원적 힘은 다시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으로 구분되며, 작용하고 운동하는 능동적 힘과 이에 저항하며, 제약하는 성질의 힘인 수동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가침투성과 관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실체가 이루어진다.²⁵⁾ 힘이라는 역학적 기체로 실체 개념을 구성하는 라이프니츠의 이 사고를 역학적 논변이라 칭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이 역학적 논변에서 구성해내는 실체는 『모범역학』을 비롯한 물리학적 사고에서 힘의 주체로 설정된 가시적인 물체가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분할불가능한 존재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실체는 부분을 가지지 않으며, 단순하기 때문에 분할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단순한 요소라는 의미로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단순실체 또는 단순하고 완전한 모나드(einfache vollständige Monad)라 칭하며, 이 모나드를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진정한 원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라이프니츠가 물체를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물체는 실체인 단순모나드들로 이루어진

24) de Volder(24. März/3. April 1699), 같은 책, 292쪽

25) 참조, de Volder(20. Juni 1703), 같은 책, 324-5, 327쪽

집합체이다.

“오직 모나드만이 실체이며, 물체는 실체들이지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²⁶⁾

“물질은 (.....)엔텔레키를 가진 것들의 집적이다.”²⁷⁾

“물체 덩어리는 (.....) 실체가 아니라, 단순실체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의 현상이다.”²⁸⁾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요약하면, 물체를 실체론적으로 이해하려면, 엔텔레키 또는 힘 같은 비물질적 원리가 기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체는 그 기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체는 분할불가능한 단순한 존재, 즉 단순실체이다. 그리고 물체는 그런 단순 실체들의 집합체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물체 개념에 수반되는 연장이나 질량 같은 물리적 특성들은 동시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결합된 다수의 실체들로부터 파생된 현상이다.²⁹⁾

그렇다면 물체, 즉 실체의 집합은 왜 실체가 아닌가? 실체의 집합인 물체가 실체가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도 라이프니츠가 앞서 실체의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 단일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체와 같이 단순실체들의 집합체인 사물에 대해 요구되는 단일성은 단순 실체의 경우에 요구되는 원소적인 단일성과는 다르다. 단순실체에 요구되는 단일성은 양적으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다는 단순성을 말한다. 물체와 같이 부분을 가진 사물들의 경우, 라이프니츠가 요구하는 단일성은 물체

26) de Volder(21. Januar 1704), 같은 책, 335쪽

27) de Volder(1699), 같은 책, 304쪽

28) de Volder(1705), 같은 책, 349쪽; 비교, de Volder(23. Juni 1699), 296, 298쪽

29) Stuart Brown,(Leibniz, Sussex 1984, 140쪽)은 라이프니츠가 ‘형이상학 논고’와 아르노와의 서신에서 물질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으며, 버클리적인 현상주의는 거부했다고 본다. : 현상론 주제와 관련하여 참조, Wilson, Leibniz's Metaphysics, 193이하; Donald P. Rutherford, Phenomenalism and Reality of Body in Leibniz's later Philosophy, 책: Studia Leibnitiana(1990) 22권

를 이루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단일체가 되게 하는 그런 단일성이다. 실체들의 집합인 물체가 실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물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는 실체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그런 단일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⁰⁾ 한 덩어리의 대리석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동일한 공간 내에서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운동을 수행하며,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존재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대리석이 가지는 그러한 단일성은 우리의 임의에 따라, 이를테면 석공이 그것을 쪼개어 두 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 군대 집단이나 양 떼 같은 집합적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집단은 구성원들이 일정한 규율에 따라 관계를 맺고,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변화가능하다. 즉 각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자체도 해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시계와 같은 인공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리석이나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가지는 단일성은 물리적이며, 인간의 임의에 의존하는 단일성이다. 이런 단일성을 라이프니츠는 우연적 단일성(*unum per accidens*)이라 한다.³¹⁾ 라이프니츠가 실체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단일성은 부분들의 관계가 필연적이어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라이프니츠의 표현으로는 부분들을 탁월하게 포괄하는 그러한 단일성이다. 부분들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결집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되, 각각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로 대체될 수 없으며, 부분들을 관련지우는 형식도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일성을 라이프니츠는 “참된 단일성”(*unum per se*)이라 하며, 이런 단일성을 만족하는 존재를 통째로의 사물(*Gesamt Dinge*)이라고 말한다.³²⁾ 형식의 변화가 가능하고 부분들이 대

30) Arnauld(28. November-8. Dezember 1686), HS, Bd. 2, 210쪽

31) 참조,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45쪽, Anm. 390

체가 가능하며, 분할 가능한 물체는 실체들의 집합으로 진정한 단일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실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2 생명체만이 실체이다.

그렇다면 단순모나드 외에 부분들의 필연적 연관과 분할불가능한 단일성을 충족하는 존재, 즉 통제로의 사물일 수 있는 실체는 어떤 존재인가?

“물체적 실체는 (.....) 살아있는 실체이다.”³²⁾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체이다. 생명체의 경우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단일체를 이룬다. 생명체의 신체는 분할될 수 없으며, 형식이 임의로 변경될 수도 없다. 부분들의 관계나 형식이 바뀌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라이프니츠는 생명체의 단일성을 지속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생명과정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실체의 단일성은 (.....) 생명과정이 나타나는, 즉 하나의 동일한 유기체적인 싹이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형성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서만 주장되고 추정될 수 있다.”³⁴⁾

그렇다면 왜 생명체만이 이런 참된 단일성을 충족하며, 무엇이 이런 단일성을 보증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라이프니츠는 참된 단일성을 보증하는 원리를 단순 모나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체인 영혼으로 규정한다.

32) Arnauld(28. November-8. Dezember 1686), 같은 책, 210쪽; 비교, de Volder(21. Janur 1704), 334, 337쪽

33)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42쪽

34) Arnauld(28. November-8. Dezember 1686), 같은 책, 211쪽, Anm. 368

“물체가 무지개같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실체라면, 즉 돌무더기처럼 단순히 우연한 집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단일성이 아니라면, 본질은 연장에 있을 수 없으며. 필히 실체적 형상이라 불리는, 일정한 방식으로 영혼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가정해야 한다.”³⁵⁾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영혼을 실체적 형상이라고도 말하는데, 형상이란 물질에 일정한 존재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니츠가 영혼을 기체로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물체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하나의 참된 단일체로 통합되게 하는 원리라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연장이나 물체는 실체가 될 수 없고, 영혼이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라이프니츠의 관념론적 주장은 특정한 존재론적 관점에 따른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단일성이라는 조건의 충족을 위한 논리적 근거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혼이 부여된 그래서 하나의 단일성을 가지는 존재는 다름 아닌 생명체이다. 생명체란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생명 있는 물체에만 실체적 형상, 즉 영혼을 인정한다고 말한다.³⁶⁾ 이로서 물체와 생명체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 차이는 실체적 기체인 영혼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차이이며,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가지지 않은 물체는 단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 실체들의 집적에 머무르며, 영혼을 가진 물체는 유기적으로 질서 지워진 신체를 가진 생명체로 존재하며, 이를 신체적 실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생명체는 영혼과 물질의 합이라는 식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생명체의 신체를 “모든 부분들에 영혼이 깃든 물체”라는 표현이나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라이프니츠가 자주 쓰는 어법, 즉 “물체가 실체라면“, (...) 물체에 실체적 형상이라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는 어법들은 라이프니츠의 취지와는 달리 그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영혼과 물체가 따로 존재하고, 물질에 영혼이 더해져서 생명체

35) Arnauld(Juni 1686), 같은 책, 206쪽; 비교, 244쪽

36)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42쪽

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기체에서의 참된 단일성은) “우리의 생각에 의한 임의적인 구성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으로 존재하며 근거 지워진 단일성이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생명과정의 계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성되게 하는 단일성이다.”³⁷⁾

라이프니츠는 여기서 유기체적 단일성이라는 이름하에 유기체적 신체를 가지는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정 내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밝히는데, 이는 생명체의 신체는 물질에 영혼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기체적 신체를 생성하는 생명과정의 근거를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앞서 동력학적 논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체인 엔텔레키나 영혼이 가진 실체적 특성이며, 생명체의 경우에는 유기체적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과정을 추진하는 힘, 즉 생명형성력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위의 인용문은 유기체적 신체를 가진 생명체는 영혼 자체가 가진 생명형성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과정 가운데서 생성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생명체의 존립은 생명체 자체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내적으로 근거 지워진다” 또는 ‘실체 자체의 전개법칙을 통해 촉진되고 근거 지워진다’고 표현한다. 이 표현들의 근본적 의미는 생명체의 존립은 라이프니츠가 명시하는 ‘인간의 임의적인 구성’, 즉 개념적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힘이나 질료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적으로 또는 실체 자체의 전개법칙을 통해 근거 지워짐의 더 깊은 의미는 생명형성력인 근원적 힘 개념에 있다. 근원적인 힘은 앞서 동력학적 논변에서 살펴 본 것처럼 능동력과 수동력으로 존재하며, 작용하는 보편적 힘인 능동력은 기체인 영혼이나 엔텔레키와 같은 의미이며, 수동력은 실체 모나드가 물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능동력과 수동력은 동일한 기체

37) 같은 책, 245쪽, Anm. 390

인 영혼의 상대적인 두 국면이라는 것이다. 즉 힘의 능동성은 작용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수동성은 물성을 가지고 운동에 저항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³⁸⁾ 이러한 사실은 능동력과 수동력 또는 정신과 물성이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기체들이 아니라, 하나인 기체 영혼 또는 근원적 힘이 드러나는 양태이며, 그 드러남에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두 계기임을 의미한다. 동력학적 논변에서 살펴 본 것처럼 능동력과 수동력이라는 두 힘에 의해 단순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원래부터 따로 존재하던 두 기체인 능동력과 수동력이 합쳐져서 또는 물성에 영혼이 더해져서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의 드러남의 두 계기에 근거하여 물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실체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물성도 영혼 자체의 드러남이며, 그런 것으로서 물체는 영혼의 수반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능동력과 수동력, 영혼과 물질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기체로 보고, 이분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일한 논리로 생명체도 물질에 영혼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의 생명 형성력, 즉 능동력과 수동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과정 내에서 유기체적 신체를 가진 존재로 존립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 영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과정의 계기인 신체는 영혼 자신의 다른 한 국면이며, 신체는 처음부터 영혼을 가진 존재로만, 라이프니츠의 표현대로 영혼이 깃든 물체(beseelte Körper)로서만 존재한다.³⁹⁾ 이러한 사태는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신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생성하는 생명과정 내에서 작동하는 원리이다. 이는 영혼과 신체의 재귀적 관계, 즉 영혼은 신체를 통해서, 신체는 영혼을 통해서야만 각자의 존재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아가 영혼과 신체는 동시 수반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영혼과 신체의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38) 라이프니츠는 능동성과 수동성을 인식론적으로는 인지행위의 명료성과 불명료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영혼은 의식이 명료한 만큼 능동적이고 정신적이며, 혼탁한 만큼 수동적이며, 물질적이다.

39) Arnauld(September 1687), HS. Bd. 2, 242쪽; 비교, de Volder(23. Juni 1699), 299쪽

라이프니츠는 뒤에 언급할 인식론적인 논변에서는 영혼의 본질은 신체를 표상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한다.⁴⁰⁾ 영혼의 본질이 인지활동이라면, 그리고 인지활동의 대상이 물체라면, 영혼은 오직 물체를 통해서만 활동하며, 그를 통해서 자신의 존립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라이프니츠는 신체를 결한 영혼이나 영혼을 결한 신체를 인정하지 않는다.⁴¹⁾

영혼이 깃든 유기체적 존재인 생명체를 물체적인 것과 구분지우는 또 다른 요소는 생명체의 기계론적 환원불가능성이다. 실체인 생명체를 단순 실체들의 집적체인 물체와 구분하기 위해 라이프니츠는 생명체를 “유기적으로 질서 지워진 기계” 또는 “영혼이 깃든 기계”라고 표현한다.⁴²⁾ 여기서 “유기적으로 질서 지워진”이란 수식어는 생명체의 신체를 물리화학적적으로 구성된 물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계와 구분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기계라는 표현은 라이프니츠가 마치 유기체도 기계적 원리로 완전히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오해의 소지는 “동물적 실체는 운동과 힘의 전달이라는 물리적 법칙에 따라 통제된다”는 표현에도 존재한다.⁴³⁾ 라이프니츠는 일단은 -갈릴레이나 케플러 등 근대과학을 선도한 학자들이 그랬듯이- 자연은 기계적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기계론적으로 완전히 환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유기적으로 질서 지워진 존재인 생명체는 무수한 수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수많은 유기체적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다시금 무수히 많은 부분들로, 궁극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라이프니츠는 유기체적 신체를 가진 생명체를 기계에 비유하는 경우 그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의 부분들도

40) 참조, de Volder(24. März/3. April 1699), 같은 책, 292쪽

41) de Volder(20. Juni 1703), 같은 책, 329; 비교, Monad, § 72

42) 참조, Arnauld(28. November.-8. Dezember 1686), 같은 책, 212쪽, (April 1687), 253쪽

43) 참조,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51쪽

기계로 되어 있는 “무한 기계”, “신이 만든 기계”라고 표현한다.⁴⁴⁾ 무한이나 신적이란 수식어는 대상이 물리화학적으로 구성된 물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기계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따라서 인간의 유한한 분석능력으로는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나 또는 물체에 적용되는 기계론적 환원을 부정함을 의미한다.⁴⁵⁾

라이프니츠에서는 단순모나드를 예외로 하면, 살아 숨 쉬고 활동하는 신체를 가진 생명체만이 실체이다. 실체라는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생명체도 모나드라 칭하는데,⁴⁶⁾이 모나드는 단순모나드, 즉 단순 실체가 아니라, 다수의 단순 실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즉 신체를 가진 복합실체이다.⁴⁷⁾

3.3 실체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물체가 실체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라이프니츠에서 실체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실체를 의식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실체적 기체인 영혼의 본질을 의식 활동이라는 심리적, 인지적 개념으로 사용함에 의해서이다. 이처럼 심리적,

44) 참조, 같은 책, 244, (März 1690), 264쪽 이하; PNG, §3; Monad, §64

45) 부분의 구조를 전체의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는 라이프니츠의 유기체론을 윤선구(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 (1) 철학연구 제88집, 143쪽)는 프랙탈 구조로 설명한다.

46) 참조, *De ipsa natura*: GP IV, 512.: “이 실체적 원리(엔텔레키) 자체는 생명체인 경우에는 영혼, 다른 존재인 경우에는 실체적 형상이라 불리는 것이며, 이것이 물질과 결합한 경우에 한에서 하나의 참된 실체 혹은 진정한 단일성(unum per se)을 구성한다. 이것이 내가 모나드라고 부르는 것이다.”(이상명,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135쪽에서 재인용)

47) 라이프니츠에 있어 물체적 실체의 물체는 Smith(Smith, Justin Erik (1998), “On the Fate of Composite Substance After 1704”, 책: *Studia Leibnitiana* 30. 205 이하참조)의 판단과는 달리 처음부터 유기체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비교, 윤선구, 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1), 철학연구 88집, 139쪽) 유기체적 생명체인 실체를 라이프니츠는 초기에는 주로 “물체적 실체”로, 「모나드론」이나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 같은 후기 저작들에서는 “복합실체” 또는 “살아 있는 실체”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유기체적 관점의 심화로 이해된다.

인지적 활동을 바탕으로 한 실체에 대한 사고를 인식론적 논변이라 할 수 있다.

실체를 의식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역학적 논변과 생물학적 논변에서 기체를 영혼으로 규정하는데서도 이미 예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정신적 기체인 영혼의 본질은 의식 활동이기 때문이다. 역학적, 생물학적 논변과 인식론적 논변의 차이점은 전자에서는 기체인 영혼의 특성인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역학적 힘과 물질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생물학적 형성력으로 이해되는데 반해, 후자에서는 지각, 표상이라는 인지적 활동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⁴⁸⁾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영혼의 본질은 표상(Vorstellung) 또는 지각(Perzeption)이라는 의식 활동에 있다.⁴⁹⁾ 표상이나 지각은 표현하는 행위라고도 칭해지며, 그 대상은 외부 세계이다.⁵⁰⁾ 따라서 의식 활동의 주체인 실체를 라이프니츠는 표상하는 주체라고 한다. 표상이나 지각은 인지적 행위를 말하지만, 단순한 인지적 차원을 넘어 목적지향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실체는 지각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지하고, 그와 관계를 맺으며, 완성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실체의 인지적 활동은 인지되지 않은 그리고 미미한 수준의 감각적 의식으로부터 동물적 의식의 수준을 넘어 논리적이고 반성적 활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단계들을 포함한다. 의식의 수준은 인지 행위의 명료성의 정도에 의해 구분되는데, 라이프니츠는 상대적으로 명료한 수준의 의식과 불명료한 또는 혼탁한 수준의 의식을 이해(verstehen)와 감지(empfinden)란 개념으로 구분하며,⁵¹⁾ 의식을 명료성의 정도에 따라 자연적 지각(Perzeption), 감각적 감지(sinnliche Empfindung) 그리고 지성적인 인식(intellektuelle Erkenntnis)의 세 단계로 분류한다.⁵²⁾ 그리고 이 단계적 구분은 개념적으

48) 인식론적 논변은 「모나드론」에서 체계적인 형태를 가진 실체론의 핵심논변으로 등장한다.

49) de Volder(19. Januar 1706), HS, Bd 2, 354쪽 이하

50)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32쪽

51) de Volder(24. März/3. April 1699), 같은 책, 292쪽

52) Arnauld(September 1687), 같은 책, 233쪽

로 엄밀하지는 않지만, 각기 하급 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의식에 해당하며, 기체인 단순 엔텔레키, 동물혼, 이성혼에 대응한다.⁵³⁾ 그리고 생물학적 논변에서 영혼의 생명활동의 수반현상으로 언급된 동, 식물의 유기체적 신체는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체들의 의식 활동에 준하는 수반현상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라이프니츠에서 의식을 가진 생명체만이 실체이다. 미생물과 같은 하급의 생명체로부터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실체가 된다. 인식론적 관점에서도 물체는 실체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물체는 의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 물체가 실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다른 한편 물질을 실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거나 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듯한 생각들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타당하지 또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라이프니츠가 실체론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니츠가 적용하는 방법은 인간을 모델로 한 유추법이다.

“생명체외에 또 다른 실질적인 신체적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물론 나는 확실히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영혼에 유추하는 방식으로 다른 실체에 대해 몇몇 지식을 얻을 수 있다.”⁵⁴⁾

“(.....) 나는 이러한 힘의 근거 역시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작용하는 원리에 유추하여 설명하고, 그와 더불어 그 근거를 지각과 욕구의

53) Catherine Wilson(Leibniz's Metaphysics,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184쪽)의 지적처럼 라이프니츠는 식물이 영혼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54) Arnauld(28. November-8. Dezember 1686), HS. Bd. 2, 211쪽

두 계기로 환원했다.”⁵⁵⁾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외에 가시적인 세계에는
실체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⁵⁶⁾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우리 인간의 자아를 실체의 전형으로 설정함을 밝히고 있다. 라이프니츠가 저급한 단계의 실체인 엔텔레키나 동물혼 또는 생명체에 적용하는 원리나 특성들, 이를테면 단일성, 근원적 힘, 욕구, 능동성과 수동성 등의 개념들은 사실 인식론적 논변에서 제시되는 의식의 원리들에서 유추한 것이며, 이에 일정한 대응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인식론적 논변의 원형은 인간의 자의식이다. 이를테면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실체의 단일성은 표상의 지속적인 흐름가운데서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의식의 단일성에 유비된다.⁵⁷⁾ 유추란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익히 알려진 모범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주로 과학에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뉴턴이 절대공간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시도한 물동이실험, 케플러가 행성운동을 자기현상에 비유한 것 등이 유추이다. 유추의 성공 여부는 알려진 현상과 새로운 현상간의 구조적 유사성과 정합적인 설명력에 달려 있다. 유추의 이러한 의미에 준하여 라이프니츠도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자아의식에 유추하는 근거를 사물들의 본성은 인간의 그것과 대개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주를 형성하는 다른 단순한 실체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⁵⁸⁾

그러나 왜 하필이면 인간의 의식이 중심 모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

55) Bernoulli(1. Juli 1704), 같은 책, 360쪽; 비교, de Volder(30. Juni 1704), 347쪽

56) 같은 책, 212쪽

57) 참조, 같은 책, 211쪽, Anm. 368쪽; de Volder(20. Juni 1703), 325쪽, Anm. 439

58) 같은 책, 347쪽

급이 없다.⁵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라이프니츠가 자신이 적용하는 유추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태양, 지구, 달 같은 물리적 존재와 식물 그리고 동물조차 영혼이 있는지, 실체인지 또는 단지 기계, 즉 실체들의 집합에 불과한지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⁶⁰⁾, 식물이 실체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며,⁶¹⁾ 동물 외에도 신체적 실체에는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⁶²⁾ 이처럼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체계적인 논변에 모순되는 생각들은 피력하는 이유는 라이프니츠도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관찰, 즉 내성의 대상인 자아의 존재뿐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노와 드 볼더에게 보낸 서신들 보다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는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결론에 모순될 수 있는 생각도 피력하고 있다.

“물체는 살아 있는 혹은 감각하는, 이성과 반성을 결여한 실체이다. 그리고 물체의 실체적 형상은 영혼이다. 영혼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실체이다.”⁶³⁾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물체를 감각하고 사유하는 능력, 즉 의식을 가지지 않는 실체로 표현함으로써 물체를 실체의 일종으로 보는 듯 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식 활동을 하지 않는 실체란 말은 내모난 삼각형이란 개념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체인 영혼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실체는 영혼을

59) Ross(Leibniz's Phenome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Matter, 180쪽)는 인간의 의식과 그에 기반을 둔 인식론적 논변이 실체론의 모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역학적 논변이 형이상학적 논변들의 기본 틀임을 시사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60) HS. Bd. 2, 211쪽

61) 같은 책, 327쪽

62) Arnauld(April 1687), 같은 책, 216쪽

63) Introductio ad Encyclopaediam arcanam (1683-1685): A VI, 4, 531(이상명,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철학연구 제84집, 127쪽에서 재인용)

기체로 한다는 원칙에 모순된다. 즉 기체인 영혼을 결한 존재는 실체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이 표현은 원천적으로는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표현의 진의를 이해하려는 관용을 가진다면, 가능한 방법은 물체가 의식을 가지지 않는 실체라는 말을 인식론적 논변의 테두리에서 연속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연속성의 원리에 따르면, 자연에서는 어떤 비약이나 단절은 존재하지 않으며, 변화의 모든 과정들 간에는 무수히 많은 중간과정이 존재한다.⁶⁴⁾ 이 원리에 근거하여 라이프니츠는 의식이 완전히 소멸됐다거나, 영혼이 떠나서 육신이 완전히 물질화됐다는 의미에서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⁶⁵⁾ 왜냐하면 죽음은 의식 활동 없음, 즉 활동 0가 아니라, 0에 무한히 수렴된, 우리가 비몽사몽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또는 큰 충격으로 의식을 상실한 상황에서처럼 지극히 혼미한, 그래서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의 지속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논리로 라이프니츠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정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지상태란 속도0에 무한히 접근한 운동상태의 한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물체를 의식활동 0가 아니라, 0라는 한계값에 무한히 수렴된, 지극히 저조한 또는 인식론적 용어로 지극히 혼탁한 의식을 가진 실체라 할 수 있다. 하급의 동, 식물과 무생물 사이에 미약한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이 가정될 수 있다. 의식활동의 한계값 0에 가까운 영역에는 지극히 미미한 의식을 가진, 결과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어려운 존재들이 자리할 것이다. 의식이 없는 물체는 그러한 영역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론도 성공적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의식활동 없음, 즉 의식활동 0와 0에로의 접근상태는 숫적으로는 근접해있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의 상

64) de Volder(24. März/3. April 1699), HS. Bd. 2, 288쪽: “자연의 모든 두 과정사이에 무한히 많은 중간과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연에서의 모든 사건은 어떤 작은 단절도, 비약도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참조, MA, 같은 책, 63쪽

65) Monad, §73, 76

태, 즉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질적으로 비교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라이프니츠가 실체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영혼이나 엔텔레키를 가진 존재와 가지지 못한 존재의 차이, 달리 말해 물체를 생명체로 만드는 지배모나드를 가진 존재와 가지지 못한, 그래서 구성원소인 단순모나드의 집합에 불과한 존재의 차이이다. 이런 이유로 물체는 의식을 결합한 실체라는 라이프니츠의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형이상학적 완숙기 이전에 집필된 라이프니츠의 글들은 가끔 일관성을 훼손하는 생각들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단편적이며, 앞서 동력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논변이라는 이름하에 살펴본 것 같은 체계화된 논변들에서 결론지워지는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반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물체는 준실체이다

이 글은 두 가지의 서로 연관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하나는 생명체들만이 실체인 세계에서 물질과 물리적 자연은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체는 실체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왜 라이프니츠는 『모범역학』에서 실체가 될 수 없는 물체를 실체로 간주하고, 물리적 현상의 해석에 실체적 원리를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가 실체의 조건으로 요구한 단일성 문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생물학적 논변에서 살펴 본 것처럼 물체가 실체가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바, 물체는 참된 단일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물체에 단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는 분명 단일체이다. 물리 실험을 하는 갈릴레이에게 한 덩어리의 대리석은 하나의 독립

된 사물이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그 대리석을 단일체로 보는 근거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부분들이 하나의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동일한 운동을 수행한다는 물리적 단일성에 있다. 그러나 대리석이 가지는 물리적 단일성은 라이프니츠가 실체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참된 단일성이 아니다. 참된 단일성은 부분들이 하나의 형식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둘로 나뉘지거나 그 부분들이 임의로 교체되거나 부분들의 관계가 변형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단일성이다. 이런 조건은 영혼을 가진 생명체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물에 부여하는 또는 갈릴레이가 한 덩어리의 대리석에 부여하는 단일성은 생명체가 가지는 단일성과는 다르다. 대리석 같은 사물에서 부분들의 관계나 형식은 필연적이지 않다. 하나의 대리석은 필요에 따라 더 작은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으며, 전혀 다른 형식의 존재로 변형될 수 있다. 한 덩어리의 대리석이 여러 덩어리로 쪼개지더라도, 각각의 덩어리는 대리석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한다. 미켈란젤로가 한 덩어리를 골라 특정한 형상, 이를테면 제우스의 형상을 조각하면, 대리석은 예술품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갈릴레이에게서는 단순히 운동하는 물체에 불과했던 대리석과 예술품으로서의 제우스상은 전혀 다른 존재이다. 대리석이 참된 단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달리 표현하면, 대리석은 대리석이라는 원래의 형식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다른 형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참된 단일성은 생명체에서처럼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없는 그리고 형식이 바뀌면 원래의 모습대로 존재하기를 그치는 대상에 존재한다. 물체는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단일성을 가지며, 그럼으로써 존재성을 가지지만, 그 형식과 단일성은 생명체에서와는 달리 가변적이다. 즉 상대적이며, 잠정적이다. 이것이 물리적 존재가 가지는 단일성과 라이프니츠가 실체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참된 단일성의 차이이다. 그렇다면 물체가 가지는 단일성이 상대적이고 잠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 라이프니츠는 물리학적 사고에서 물체에 실체적 원리를 적용하는가하는 우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집합체인 물질덩어리의 단일성은 단지 표상하는 주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⁶⁶⁾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물질이 가지는 단일성은 인간의 형식부여 행위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물체가 가지는 단일성이 상대적이고 잠정적인 이유는 물체의 단일성은 생명체에서처럼 물체 자체가 가진 존재 형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적 산물이라는 데에 있다. 하나의 물체로서의 대리석,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대리석 덩어리들 그리고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 가지는 단일성은 그것과 관계하는 인간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것이다.⁶⁷⁾ 라이프니츠는 시간, 공간, 연장, 연속체의 무한 불할 가능성을 실재가 아니라, 현상이며 관념의 산물이라고 말하는데, 현상이란 말은 사물의 본질로부터 파생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며, 관념의 산물이란 사물 자체의 내재적 원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 부여된 형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대리석 조각이나 조각품이 가지는 단일성은 인간의 인식적 관심이나 실용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물질적 실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다. 물질적 실체는 외부가 아니라, 현상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같은 것에서 또는 표상하는 주체의 능동적, 수동적인 힘에서 찾아질 수 있다.”⁶⁸⁾

라이프니츠는 여기서 실체들의 집합인 물체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인식하는 인간의 개념 규정과 형상 부여 행위에 따라 단일체로 그리고 실체로 간주된다는 것을 밝힌다. 여기에 물체를 실체로 간주하는 핵심적 이유가 있다. 물체에 실체성을 인정하고 단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66) de Volder(1705), HS. Bd. 2, 351쪽; 비교, 330, 335쪽: “모든 집적체는 사유적으로 단일체이며, 단지 차용된 실체성을 가질 뿐이다.”

67) 참조, Arnauld(April 1687), 같은 책, 224-5쪽, Anm. 390

68) 같은 책, 356쪽

자연을 인식적 의도나 실용적 목적에 따라 통제하기 위한 인간의 관념적 설정에 근거한다. 인간의 관념적 설정에 따라 물체에 부여되는 이러한 단일성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잠정적이며 상대적이다. 이처럼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단일성은 가설적 단일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단일성을 가지는 물체는 가설적 의미에서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라이프니츠는 물체를 유사 실체(Quasi-Substanzen)라 칭하고 있다.⁶⁹⁾ 라이프니츠는 물체와 유사 실체 개념을 동격으로 상용하면서도,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유사 실체 개념은 물체가 가지는 단일성의 가설적 의미에 근거하여 물체에 실체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설체로서의 물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라이프니츠가 물리학적 탐구에서 실체가 아닌 물체에 실체론적 원리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물체에 가설적 의미의 단일성을 그리고 제한적인 의미로 실체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체에 실체적 원리를 적용하는 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체들의 집합인 물체에 집합의 구성 요소인 개별 실체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부분의 원리는 전체에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6. 물질세계의 의미와 위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글의 첫 번째 질문, 즉 개체적인 생명체만이 실체인 세계에서 물리적 자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자. 라이프니츠의 실체형이상학에서 세계는 세 종류의 존재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실체 모나드와 모나드들의 집합인 물질 그리고 의식을 가진 복합실체인 생명체이다. 라이프니츠가 자연의 참된 원자라 칭하는 단순실체 모나드는 물질과 생명체의 토대가 되는 원소적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실체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69) de Volder(10. November 1703), 같은 책, 331, 333쪽

분할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체를 분해해서 확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존재는 크기를 가지며, 따라서 분할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물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신적 존재도 아니다. 단순실체 모나드는 물리적인 원소도, 정신적 원리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형이상학에서 의미하는 바의 실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는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합실체인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순 논리적인 이유이다.⁷⁰⁾ 단순실체 모나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체인 복합실체, 즉 생명체들로 구성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요청된 개념적 구성물(begriffliche Konstrukte)인 것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단순 모나드들의 집합인 물질, 즉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바, 흙, 물, 공기 같은 물질로 된 물리적 자연과 의식을 가진 생명체인 복합실체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서 의미 있는 존재는 의식을 가진 실체인 생명체뿐이다. 세계는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동물 그리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로 가득하다. 이들 생명체들은 수많은 종류의 물질과 물리적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자연은 생명체들의 존속을 위한 질료로서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가지지 못한다.

이처럼 물리적 자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식을 가진 생명체만을 진정한 존재로 보는 실체론적 결론은 라이프니츠 철학이 추구한 기독교적 창조론을 배경으로 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세계는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신의 지혜와 의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합리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설계된 세계에서 인간은 여타 생명체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과 사명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적 영혼의 소유자로 논증적인 사고를 통해 자연의 진리를 밝혀내며, 반성적 사고를

70) 참조, Monad, §2

통하여 자아의 존재, 나아가 신의 존재와 의지를 인식할 수 있는 고도의 인지능력을 가진다. 라이프니츠는 이처럼 인간의 뛰어난 이성적 사고능력을 다른 생명체들의 의식 활동인 지각과 구분하여 통각(Apperzeption)이라 하며,⁷¹⁾ 통각능력을 가진 인간을 사유하는 실체라 칭한다. 나아가 인간은 지적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만큼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는다. 그것은 창조의 선의지와 목적을 간파하고, 그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⁷²⁾ 창조론적 관점에서 볼 때, 라이프니츠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는 신적 창조의 목적에 실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성적 실체인 인간이다.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라이프니츠가 자아의 자기의식을 실체 탐구의 기본 모델로 설정한데서도 이미 예견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체에 관한 개념분석적 논변을 통해 정점에 이른다. 개념 분석적 논변에서 실체는 자신에게 관계되는 모든 술어를 함축하는 완전개념으로 논리적 주어 또는 주체를 의미한다.⁷³⁾ 그런 주체는 다름 아닌 개체로서의 인간이다. 따라서 실체는 단순히 이성적이라는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인 개인, 즉 개체적 실체를 의미한다. 개체적 실체로서 개인은 자발적이며, 자족적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세계를 인지하고 더 완전한 미래를 기획하며, 모든 행위와 사건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소유주에 비견되는 주체적 존재이다.⁷⁴⁾ 개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이 기획한 우주적인 목적과 가치.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바,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신국을 구현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신이 설정한 가치와 목적이 구현된 세계가 라이프니츠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이며, 그러한 목적과 가치 구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개인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⁷⁵⁾ 우주적인 목적 구현이 지고의 덕목이며, 인간이 실천의

71) 참조, Monad, §29,30; PNG, §4,5

72) Arnauld(April 1687), HS Bd. 2, 250-51쪽

73) Arnauld(Juni 1686), 같은 책, 190쪽 이하, 198쪽 이하; 참조, J. Mittelstraß, Neuzeit und Aufklärung, 500, 511쪽

74) 참조, HS Bd. 2, 204쪽; PNG, §3; Monad, §57,62,63

주체인 세계에서 물리적 자연은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며, 인간의 가치 추구행위에 종속된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힘과 물질의 법칙은 정의와 사랑의 법칙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며, 기계적인 자연의 원리는 합목적적인 원리에 수렴한다고 말한다.⁷⁶⁾

(호서대학교)

75) 참조, Monad, §90; PNG, §14-17

76) 참조, Arnauld(September 1687), HS. Bd. 2, 251쪽; PNG, §3; Monad, §79; Gerhard Kuebart(Zum Naturbegriff in Leibniz' Vernunftprinzipien der Natur und der Gnade(1714), 447쪽 이하)는 작용인과 목적인의 관계를 자연은 은총으로 이끌고, 은총은 자연을 완성하는, 즉 자연과 은총의 상호 조화관계로 표현한다.

참고문헌

- 김국태 (2011), 라이프니츠, 역학적 원리와 에너지보존의 법칙, 책: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공저), 창비, 40-47쪽
- 윤선구 (2010), 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1), 책: 철학연구 88집
- 이상명 (2009),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책: 철학연구 제84집
- 서양근대철학회(2004),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 창비, 28-33쪽
- Aristoteles (1975), Physikalische Vorlesung, Hg., P. Gohlke, Paderborn
- Brown, Stuart (1984), Leibniz, Philosophers in Kontext, Sussex
- Duhem, Pierr (1978), Ziel und Struktur der physikalischen Theorien, (Hg.) L. Schäffer, Hamburg
- Lieben, Fritz (1953), Vorstellungen vom Aufbau der Materie im Wandel der Zeiten, ein historischer Überblick, Wien
- Kim, Kuck Tae (1989), Der dynamische Begriff der Materie bei Leibniz und Kant, dargestellt im Zusammenhng der klassischen Naturwissenschaft und deren metaphysischen Grundlegung, Konstanz
- Kuebart, Gerhardt (1968), Zum Naturbegriff in Leibniz' Vernunftprinzipien der Natur und der Gnade(1714), 책: Der Internationale Leibniz-Kongress in Hannover, Hannover
- Leibniz, G .W., Specimen Dynamicum, (Hg.) Hans Günhter Dosch 외, Hamburg 1982[SD]
- _____. Hauptschriften zur Gruldlegung der Philosophie Bd 2, (Hg.) Ernst Cassirer, Hamburg 1966[HS]
- [Hauptschriften zur Gruldlegung der Philosophie Bd 2, 에 있는 저작들의 약호]
- _____. Monadologie[Monad]
- _____. Vernunftprinzipien der Natur und Gnade[PNG]
- _____.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Mathematik[MA]

- Mainzer, Klaus (1988), *Symmetrien der Natur. Ein Handbuch zur Natur- und Wissenschaftsphilosophie*. Berlin
- Mittelstraß, Jürgen (1970), *Neuzeit, und Aufklärung, Studien zur Entstehung der neuzeitlichen Wissenschaft und Philosophie*, Berlin, 502-528쪽
- Rescher, Nicolas (1991), *G. W. Leibniz's Monadology, an Edition for Students*, London
- Ross, George MacDonald (1994), *Leibniz's Phenome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Matter*, 책: *Gottfried Wilhelm Leibniz, Critical Assessments IV*, (Ed.) Goger Woolhouse, New York, 173-186쪽
- Rutherford, Donald P.(1990), *Phenomenalism and Reality of Body in Leibniz's later Philosophy*, 책: *Studia Leibnitiana* 22권, 11-28쪽
- Smith, Justin Erik (1998), *On the Fate of Composite Substance After 1704*, 책: *Studia Leibnitiana* 30, 204-210쪽
- Wilson, Catherine (1989), *Leibniz's Metaphysics,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Prinetone
- Woolhouse, R.S.(Ed.)(1981), *Leibniz: Metaphysics and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Die Bedeutung und der Stellenwert der physikalischen Welt in der Substanzmetaphysik

von G. W. Leibniz

Diese Arbeit richtet sich darauf, zwei zusammenhängende Themen im Bezug auf dem physikalischen Gegenstand in Leibnizens Substanzmetaphysik klar zu machen. Eines davon ist es, ob der physikalische Gegenstand die Substanz ist und auf welchem ontologischen Grund Leibniz die substantielle Prinzipien auf dem physikalischen Gegenstand anwendet. Die Probleme über die Prinzipien und Konstruktionen der physikalischen Welt waren eine wichtige Aufgabe in Leibnizens Naturphilosophie, welche die philosophische Grundlegung der Naturwissenschaft zielte. Trotzdem sind Leibnizens Gedanken über die ontologische Prinzipien und Bedeutung von der Materie und den körperlichen Dingen und **며초** über deren naturwissenschaftliche Anwendung nicht genug aufgeklärt. Ein anderes Thema ist es, welche Bedeutung und welchen Stellenwert die physikalische bzw. materielle Welt in der Leibnizens Philosophie insgesamt einnimmt? Diese Frage hat die gegenwärtige Situation als Hintergrund, daß die Bedeutung der materiellen Welt trotz der Tatsache, daß die materielle Welt die notwendige Grundlage aller Lebewesen bildet, relativ wenig beachtet ist. Mein Ergebnis ist wie folgend: Erstens, nur die Lebewesen, welche das Bewußtsein haben, sind zur Substanz gezählt und die physikalische Körper bzw. die Materie sind keine Substanz. Aber Ihnen ist die Substantialität in einem hypothetischen Sinn unter der Namen der Quasie-substanzen zugegeben. Auf diesem Grund ist es gerechtfertigt, die substantielle Prinzipien auf

den physikalischen Problemen anzuwenden. Zweitens, in Leibnizens Ontologie, welche die christliche Weltanschauung und die homozentrische Gedanken im Hintergrund hat, erhält die physikalische Welt ihre Bedeutung nur als die praktische Medien des vernünftig handelnden Menschen, und insofern wird nun die Natur ins Bereich der menschlichen Praxis eingebett.

Main Scope: Metaphysik, Naturphilosophie, Westliche klassische Philosophie

Keyword: Körper, Materie, Substanz, Lebewesen, Einheit, Quasi-substanz, physikalische Welt, homozentrisch

김국태 e-mail: ktkim@hoseo.edu

투 고 일	2012년 04월 10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2일
게재확정	2012년 05월 21일